

고용 약자에 더 독한 코로나...“취약계층 소득보전 시급”

작년 임시직 노동자, IMF 넘어 사상 최대치
식당·마트·학원강사 등 대면서비스업종 직격
“선별 재난지원금 여러 차례 편성 고려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가 촉발한 고용쇼크는 특히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노동자의 신규 취업자 수 감소폭이 과거 외환위기 당시 기록을 훌쩍 뛰어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식당이나 마트, 학원 등 대면서비스업종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14일 통계청의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임시근로자는 31만3000명(-6.5%)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9년 이후 최저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19만4000명)보다 더 큰 감소폭이다. 이들이 고용시장 밖으로 내몰린 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종의 휴·폐업이 늘면서다. 코로나19 초기 취업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일터에는 나오지 못하던 일시휴직자들 중 다수가 끝내 복직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취업자 감소폭을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도매 및 소매업(-16만명·-4.4%), 숙박 및 음식점업(-15만9000명·-6.9%), 교육서비스업(-8만6000명·-4.6%) 등에서 크게 나타났다. 세 업종 모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임시직이 과거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 역시 이번 경제위기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 상황

과 무관하지 않다. 외환위기의 경우 제조업 위기가 서비스업으로 파급되는 양상을 띠었다면, 이번에는 대면접촉과 이동량의 급격한 감소로 서비스업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이 가해졌다는 분석이다. 고용지표가 경기에 후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확진자 증가세가 완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일자리 상황이 제 자리를 찾는 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장이 정상화가 돼야 사람을 뽑을 텐데, 1년간 누적된 피해로 이미 문을 닫아버린 곳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이라며 “지난 해 연초 저저효과를 감안하면 향후 1~2월까지 지표적으로 힘든 고용상황 지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청년과 여성 층 등 다른 취업취약계층에서도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20대(-14만6000명)는 1998년(-56만3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1998년(-61만6000명) 이후 가장 많은 18만3000명이 줄었다. 여성의 경우 13만7000명이 감소해 남성(-8만2000명)보다 감소폭이 컸다. 여성의 임시직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만5000명(-10.8%) 감소, 1998년(-24만7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인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소위 '나 홀로 사장님' 9만 명(2.2%) 늘었다. 구직활동 자체에 나서지 않아 취업자 감소폭에 집계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는 28만2000명(13.5%) 증가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구직 단념자



도 전년보다 7만3000명 늘어난 60만 5000명으로 조사됐다. 구직 단념자 규모는 2014년 통계 개편 이래 최대다. 고용지표는 향후에도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가 반등한다고 해도 고용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부진이 가계소득 감소, 소비 감소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내수 위축을 더 연장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신봉우기자

시장심리 톱5, 이마트·대한항공·대우건설·LG생활건강·롯데칠성

오늘의 MSI 톱5	오늘의 MSI 위스트5
01-14 08시 기준	01-14 08시 기준
이마트	현대제철
대한항공	LG유플러스
대우건설	삼성생명
LG생활건강	삼양사
롯데칠성	제일기획

14일 빅데이터 시장심리지수(MSI)가 가장 높은 톱5에 이마트·대한항공·대우건설·LG생활건강·롯데칠성이 선정됐다. 뉴시스와 코스콤이 주요 상장기업 250곳에 대해 공동 분석해 산출해 낸 빅데이터 MSI(<http://m.newsis.com/stock.html>, 모바일 전용)로 전 거래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데이터를 취합한 결과다. 이마트의 시장심리지수는 전 거래일과 같은 7단계 '매우 좋음'을 나타냈다. 관련 키워드로는 합름, 나트름, 상품, 보조배터리, 고객, 서비스, 도시락, 충전패드 등이 뽑혔다. 대한항공의 시장심리지수는 전 거래일과 동일한 7단계로 집계됐다. 연관 키워드로는 항공사, 등급, 평가, 서

비스, 고객, 국민연금, 항공기, 가내 등이 꼽혔다. 대우건설의 시장심리지수는 7단계 '매우 좋음'으로 전 거래일과 같았다. 온라인에서는 클럽, 간식, 주택, 산업, 수주, 성장세, 가업, 자리 등이 주로 검색됐다. LG생활건강의 MSI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두 계단 오른 7단계로 나타났다. 핵심 키워드로는 에널리스트, 컬러, 부문, 화장품, 베스트, 온라인, 하나 금융투자, 대형주 등이 선정됐다. 롯데칠성의 MSI지수는 7단계 '매우 좋음'으로 전 거래일과 같았다. 주요 키워드로는 라벨, 아이시스, 페트병, 생수, 롯데칠성음료, 소비자, 포장재, 출시 등이 뽑혔다. 시장심리가 낮은 '위스트5'에는 현

대제철·LG유플러스·삼성생명·삼양사·제일기획이 포함됐다. 현대제철의 시장심리지수는 전 거래일과 같은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관련 키워드로는 노조, 파업, 인상, 후관, 컬러강판, 수주, 생산, 철광석 등이 꼽혔다. LG유플러스의 시장심리지수는 1단계로 전 거래일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연관 키워드로는 요금제, 사은품, 인터넷, 데이터, LG유플러스, 서비스, 이용, 인터넷가입 등이 뽑혔다. 삼성생명의 시장심리지수는 1단계로 전날과 동일한 레벨을 나타냈다. 온라인에서는 서비스, 보험, 디지털핀단, 에널리스트, 가입심사, 이력, 마이데이터, 절차 등이 주로 검색됐다. 삼양사의 MSI지수는 1단계로 전 거래일 대비 6단계 하락했다. 핵심 키워드로는 아워홈, 숙취해소제, 상품, 라면, 온라인몰, 판매량, 전용, 고객 등이 선정됐다. 제일기획의 MSI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단계 내린 1단계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키워드로는 에널리스트, 랜탈, 서비스, 온라인, 쇼핑, 구매, 베스트, 부문 등이 뽑혔다. MSI는 총 7단계로 나뉜다. 1단계 '매우 나쁨', 2단계 '나쁨', 3단계 '약간 나쁨', 4단계 '보통', 5단계 '약간 좋음', 6단계 ' 좋음', 7단계 '매우 좋음' 등으로 분류된다. MSI 레벨이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7단계 쪽으로 바뀌면 해당 종목에 대해 온라인상에서의 반응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뉴시스

“거스름돈 계좌로 받으세요”...이마트24도 시작

현금 결제 뒤 남은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미니스트프와 현대백화점에 이어 이마트24에서도 현금으로 결제한 뒤 남은 거스름돈을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14일 이마트24 전국 5400개 매장에서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비스가 먼저 시행된 한국미니스트프 전국 2570개 점포, 현대백화점 15곳, 현대아웃렛 8곳에 이어 추가로 개시되는 것이다. 이로써 서비스 유통사업자는 모두 3곳으로 확대됐다.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는 가맹점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물건을 계산한 뒤 남은 돈을 이용자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다. 모바일 현금카드의 QR코드와 바코드, 실물현금카드를 매장 단말기에 인식하면 계좌로 잔돈이 입금된다. 한은이 추진 중인 '동전없는 사회' 사업의 일환이다. 은행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은 금융결제원이 담당한다. 현재 농협, SC제일, 우리, 신한, 기업, 국민, 수협, 전북, 대구, 경남, 부산, 제주, 광주은행, 농·수협 등 15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현금카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오는 2월말까지 하나, 산업은행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은은 "현금 사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참여 유통사업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현대차증권 “LG상사, 영업실적 호조 지속...목표주가 ↑”

구분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BITDA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P/E (배)	P/B (배)	EV/EBITDA (배)	ROE (%)	배당수익률 (%)
2018	9,988	166	-70	238	-1,815	락진	NA	0.5	8.8	NA	1.6
2019	10,531	135	29	292	737	확진	20.4	0.5	6.8	2.5	2.0
2020F	10,688	156	310	318	7,988	983.6	3.1	0.7	6.7	23.7	1.2
2021F	11,990	196	114	362	2,946	-63.1	8.9	0.7	6.1	7.7	1.1
2022F	12,054	204	122	369	3,149	6.9	8.4	0.6	5.6	7.6	1.1

*KIFRS 연중 기준

현대차증권은 14일 LG상사(001120)에 대해 올해 영업 실적 호조가 이어질 전망이다며 투자여건 '매우'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박종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LG상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한 2조7761억원, 영업이익은 2387% 오른 411억원으로 전분기에 이어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출액이 3분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교역량 감소로 산업재·솔루션 부문이 전분기 대비 큰 폭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영업이익은 3분기에 이어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다. 물류의 견조한 영업이익의 창출과 함께 에너지·팜 부문의 적자 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도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조9904억원, 영업이익은 19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 25.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부진했던 트레이딩(산업재·솔루션) 부문 회복으로 매출액은 전년비 12.2% 증가할 것”이라며 “영업이익도 큰 폭 증가할 것이다. 물류 부문이 주도하는 가운데 인프라 부문의 이익 증가와 자원 부문의 적자 축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주택 공급 확대로 방향 선회...재건축 기대감 상승

정부 잇단 수요 억제 대책...재건축 단지 희소성 부각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어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내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뉴시스 취재진에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예고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매매 대기 수요는 많은데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주자 문의도 늘었다”고 전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집값이 들쭉날쭉하고 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부동산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른바 ‘푹푹한 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재건축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집값 ‘키 맞추기’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의 1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0.06% 올라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4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0.11%)가 가락·문정·장지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강동구(0.11%)는 학곡 수요 있는 양사·명일동 위주로, 서초구(0.10%)는 반포·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9%)는 재건축 기대감 있거나 일원·수서동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또 동작구(0.06%)는 사당·대방동 구축과 혁신동 신축 위주로, 영등포구(0.04%)는 신길·문래·도림동 등 역세권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 지역에선 마포구(0.10%)가 정주여건 양호한 공덕·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자양·광장동